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6 Number 03 3 2018

9기 ITCM이 있기까지

창조과학선교회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심도 있고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ITCM(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창조사역 집중훈련) 이다. 지금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작된 9기 ITCM 훈련생들이 막바지 한 주를 남겨놓고 마무리가 한창이다.

ITCM은 10명의 훈련생들이 6–8주간 함께 먹고 자며 창조과학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세미나, 도서 읽기, 동영상 시청, 성경공부 등 하루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며, 창조과학탐사와 두 번의 field trip이 포함되어 있다. 강사진만 7명에 달한다. 각 프로그램은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등 각 분야에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된다. 소수정예의 훈련생들을 위해 강사진의 수가 많은 편이다. 그만큼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강사진들은 단지 창조과학선교회가 위치한 LA 근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타주인 뉴저

위에서부터
2기, 3기, 4기
ITCM

지, 테네시, 워싱턴 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에서도 세미나를 위해 출동한다. 참으로 놀라운 열정과 수고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유익한 훈련 중 하나는 창조과학탐사 참여이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등을 경유하는 창조과학탐사는 창조과학, 특별히 홍수심판에 대한 지식의 습득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유타주를 통과하며 지질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사막, 지층, 사층리, 협곡, 부정합, 선상지 등 다양한 퇴적 및 침식 지형을 직접 관찰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참가자들은 콜로라도 고원을 이루는 지층과 협곡의 형성 과정을 들으며 마침내 성경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 전 지구적인 홍수심판이 머리와 마음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과학탐사는 참가자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살다가 왔다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변화를 일으킨다. 이 사역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훈련생들은 성경과 함께 떠난 여행이 얼마나 놀랍게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안내하는지 보게 된다. 인도자의 프로그램 진행과 참석자들의 변화를 보고 들으며 창조과학이 이 진화론 시대에 참으로 귀한 도구임을 확인하게 된다.

두 차례의 Field trip은 3일간 샌디에고 주변에 위치한 앤자보레고(Anza Borrego) 주립공원, 토리파인(Torry Pine) 주립공원, 창조역사 박물관을 보며 창조-홍수-빙하시대에 이어진 일련의 역사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과, 2일 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오웬스(Owens) 분지를 통해 빙하시대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이는 지질학 전공자인 이재만 회장과 미국인 강사인 Bill Hoesch가 인도하며 훈련생만을 위한 깊이 있는 지질답사로서 진행된다. 이때 화석, 지층, 사층리, 습곡, 단층, 빙하지형, 화산지형 등 지질학적 증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아홍수에 의해 발생된 격변적인 퇴적과 격변적인 침식 및 격변적인 판운동의 결과들을 확인하게 된다. 화석들을 실제 만지고 관찰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실습이다. 또한 모든 기존 지형 위에 형성된 빙하지형들을 돌아보며 홍수심판 이후 빙하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지질학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실내에서는 현장학습 못지않게 심도있는 공부가 이루어진다. 20회 이상의 세미나와 로마서 및 창세기 성경공부를 한다. 또한 창조론, 진화론, 지구의 역사, 계몽주의 이후의 서구 사상의 흐름,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타협이론 등에 대한 십 여권의 책을 읽으며 문답을 작성하고 깊이 있는 토의 시간도 갖는다. 이 외에도 서른 편 가까운 영상을 시청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성경을 변증하는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배운다. 이렇게 다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인의 사고 곳곳에 파고든 진화론의 영향과 그 허구성을 파악하게 된다. 이 때 비로서 성경을 믿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들이 보이며, 그것들이 파해지는 감격을 맛보게 된다.

ITCM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다루어 보려고 한다. ITCM의 모체는 창조과학 인턴쉽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USC 대학원생이었던 최태현 형제가 여름방학 동안에 창조과학 인턴쉽을 받고 싶다고 사무실에 찾아왔다. 여름방학 3개월 간 진행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2009년 당시 한동대 생명과학과 3학년(현재 미시시피 주립대학에서 지구물리학 박사과정) 조희천 형제가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한 후 인턴쉽을 받고 싶다고 문의를 하면서 두번 째 인턴이 되었다. 이어서 지금 창조과학선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노휘성 선생님과 이인우, 양윤희 등이 인턴쉽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조희천 형제가 2011년 동료 4명과 함께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제안과 함께 정식으로 ITCM이란 이름으로 1기 ITCM이 시작하였다. 1기 ITCM은 창조과학선교회 역사에 참으로 놀라운 전기였다. 실제로 여러 명이 함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서 하숙을 하면서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통학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많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들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당시 창조과학선교회 재정으로는 다섯 명이 하숙 하며 훈련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ITCM 시작하기 3주 전인 12월 초에 시카고에서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아시는 권사님께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시는 곳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하셔서, 창조과학선교회가 생각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는 내용이었

위에서부터
5기, 6기, 7기
ITCM

다. 그때 보내주신 헌금이 두 달간 ITCM을 위해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다. 당시 동료를 미국으로 불러 함께 훈련을 받고자 했던 조희천 형제의 용기와 적시에 후원해주신 권사님을 통해서 1기 ITCM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2, 3기 ITCM이 진행되며 숙소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하숙 시설, 식사, 통학 등 불편함이 점점 드러났다. 이때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던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ITCM 숙소가 마련되었고, 훨씬 편안한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갖추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식사를 해주시는 도우미를 통해서 훨씬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된 것도 큰 기쁨이 되었다. 감사한 일은 매번 ITCM이 진행될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적은 참가비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다. 숙식과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진행되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어 훈련의 집중도도 매우 높아졌다. 또한 횟수가 늘어날수록 훨씬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위에서부터
8기, 9기 IT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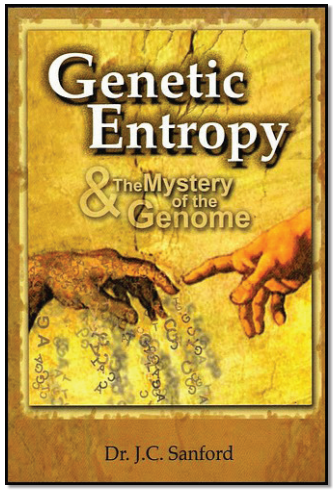
지금까지 70명의 ITCM 훈련생들이 배출되었다. 참석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배운다. 아울러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진화론에 갇혀있는지와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숙고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 자신들이 훈련 받게 된 것이 참으로 선택된 특권임을 공감한다.

지금까지 ITCM이 진행된 것을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첫 인턴쉽부터 1기 ITCM, 후원과 숙소, 그리고 강사진의 헌신 등 전적으로 주님의 계획과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 지면을 통해서 ITCM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후원자님들, 수고해주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여러 모로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앞으로 ITCM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쓰임 바 되는 일꾼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모든 영광을 창조주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노휘성
지구과학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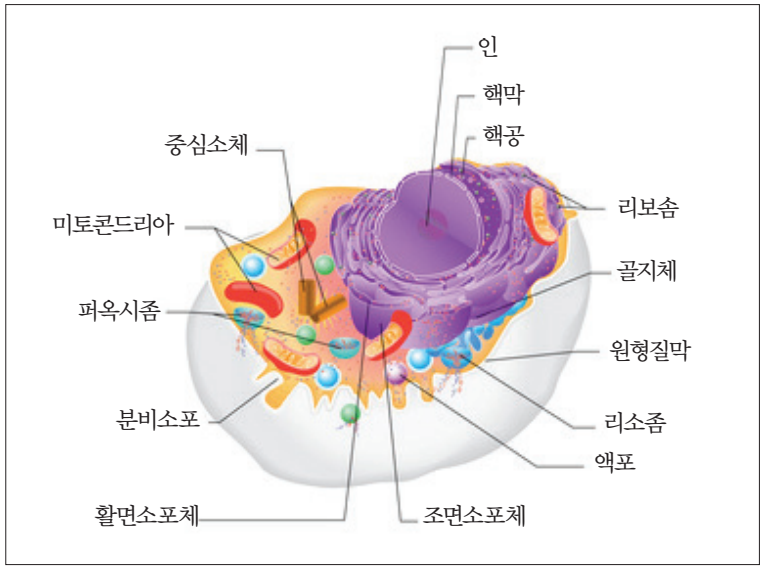
당신은 30조 입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세포는 무엇인가?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몸의 각 부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다. 학교 생물시간을 회상해 보면, 세포 막, 세포 안의 핵, 미토콘드리아, 라이소좀 같은 기관을 설명듣고, 그림 그려서 외우고, 기능들을 외우고 나면 대략 세포 공부가 끝났었다. 그리고 기말 고사 보고나면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몸에 세포가 몇개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30조 (1×10^{13})개! 영(0)이 자그마치 13개가 붙었다[2](물론, 사람의 체격, 체중, 나이,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 가운데 몸의 가장 위쪽, 뇌 속에 약 60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이것들을 통해 생각하고, 기억하고, 몸의 각 부분이 움직이도록 지시하고, 몸의 각 부분에서 오는 신호(신경)를 느끼고, 실행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뇌세포는 생각을 전달한다. 그런데 심장 세포는 피를 보내는 일을 할 때 생각하거나 판단할 줄 모른다. 단지 달리기 할 때는 박동을 빨리하고, 잠잘 때는 심장이 천천히 뛸 뿐이다.

위장의 세포는 음식을 주무르며 소화하는 일을 하는 반면 심장처럼 박동할 줄 모른다. 하지만, 위벽으로 pH가 1인 강산(염산)을 짜내서 음식안에 들어있는 유해 미생물을 죽이고, 고기와 같이 질긴 음식을 분자단위로 잘게 부숴서 소화의 다음 단계로 넘겨 주는 일을 할줄 안다. pH 1이면 소고기 단백질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수분해 되어서 고기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하지만 위장세포는 그런 강산이 붙어도 끄덕없이 자신을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뇌세포와 심장세포에는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없



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30조 개 세포의 시작은 단 하나의 세포이다. 엄마 배 속에서 수정된 순간 단 하나의 세포를 형성한 이후, 분열을 거듭하여 심장, 위장, 뇌, 손, 다리, 피부, 머리카락 …… 등 다양한 조직들의 세포가 되었다.

세포는 작아서 맨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몸집이 작다. 1 밀리미터 안에 대략 1000개의 세포가 한 줄로 늘어설 수 있다(일렬종대). 다른 말로하면, 세포 하나의 직경이 대략 1/1000밀리미터라는 얘기다. 세포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세포들이 널려있다. 우선, 내 몸안에는 30조 개의 세포가 담겨있으니 우선 나부터 엄청난 세포 뭉치인 것이고, 내 주변에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가 그 안에 세포 뭉치가 있다. 내 몸무게의 절반 쯤되는 시베리아 허스키라면 대략 15조 개의 세포일 것이고, 그보다 작은 고양이, 토끼, 다람쥐, 생쥐로 내려가면서 점점 몸집이 작은 만큼 체세포의 수는 적어질 것이다. 곤충 보다 더 작으며 세포 하나 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미생물 (microorganism)이라 하는데, 세포와 세포가 붙어있지 않고, 각각의 세포가 따로 살아가는 단세포 생물들이다(그러니까 식물과 동물, 사람은 다세포 생물이다). 미생물에는 크게 세균, 곰팡이, 효모, 세 그룹이 있다.

세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장균일 것이다.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고 사람을 비롯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대장 속에 이 균을 가지고 있어서 대장균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은 세균이지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소화를 도와주고 장속에 들어온 유해균과 싸우거나, 낯선 균들이 들어와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편" 세균이다. 우리 배 속에 있는 대장, 그 안에는 대장균이 얼마나 있을까? 앞에서 우리 몸 안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신 분들은 또 한번 놀랄 것이다. 당신의 몸속 대장안에는 당신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만큼 대장균이 들어있다. 학자에 따라서 10배까지 많은 수의 대장균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3]. 놀라운,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30조이고, 대장안에만 또 다른 30조 개의 세포가 공생 (symbiosis)하고 있는 것이다[4][5].

대장균은 세포 하나로 된 생물이고, 사람의 몸은 세포 30조 개로 이루어졌다. 대장균은 대략 20분에 한 번 분열하여 번식하며, 하루에 100회 가까이 자손을 생산한다. 직계 자손을 번식시키는 속도에 있어서 가히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이다. 빠른 번식은 그만큼 직계자손에게 빠른 속도로 돌연변이를 축적시킬 것이므로 정말로 돌연변이가 진화를 이끈다면, 대장균은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은 진화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장균은 여전히 자신과 똑같은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대장균만을 번식시키고 있다. 다른 것이 된 적도, 될 수도 없다. 한편, 사람은 엄마의 자궁에서 단 하나의 세포로 출발해서 30조 개로 분열되었지만, 어느 한 세포도 사람이 아닌 다른 정보를 가진 세포로 변화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또 언제까지 그럴까?

〈유전학 앤트로피〉(Genetic Entropy, John Sanford, 2014)라는 책의 저자 존 샌포드(John Sanford) 박사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식물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네소타 대학과 코넬대학에서 교수 생활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후, 유신론적 진화론 (오랜 지구 연대를 주장하는)에 10여년 동안 심취하고 계셨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창조론 (젊은 지구)을 믿고 전파하는 과학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 안에는 세포와 유전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돌연변이 (엄밀하게 말하면 유전학적 변이)가 진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진화가 돌연변이에 의해 진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돌연변이가 오히려 역진화 (Devolution, 즉, 종의 퇴보와 궁극적 멸종)를 일으킨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돌연변이가 우리의 삶과 질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 메카니즘을 인구통계학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수 회에 걸쳐 이 책과 돌연변이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시리즈로 정리할 것이다.

김낙경 박사
식품공학

(1) Genetic Entropy, 4th Edition, 2014. John C. Sanford
(2) Bianconi et. al. (2013). "An estimation of the number of cells in the human body". Annals of Human Biology. 40 (6): 463–471.
(3) American Academy of Microbiology FAQ: Human Microbiome January 2014
(4) Guarner, F; Malagelada, J (2003). "Gut flora in health and disease". The Lancet. 361 (9356): 512–19.
(5) Sears, Cynthia L. (2005). "A dynamic partnership: Celebrating our gut flora". Anaerobe. 11 (5): 247–51.

ACT News

행복한교회중고등부

예인장로교회 창조과학탐사

지난 1월 15-21일 일주일간 예인장로교회(담임목사 김홍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데스 밸리, 알라바마 힐스, 샌디에고 등을 경유하며 창조-홍수-빙하시대의 증거들을 배우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4년 전 창탐에 참석하신 후 오랜 기간동안 준비하여 성도님들의 창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창조과학 도서와 비디오를 통해 사전 준비를 하고 참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창탐보다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적 증거를 통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불고 있는 타협이론의 위험성도 분명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예인장로교회는 2019년 3월 나흘간 창조과학 집회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인천섬기는교회에서도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

노휘성 강사는 지난 1월 28일에 행복한교회(담임목사 박진성)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생물의 기원"을 강의하였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저술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참다운 종의 기원에 대해 성경에 사실로 기록되어 있음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창

예인장로교회

이충현 집사님을 통해 인류의 기원을 배우고 있는 모습

Fossil Canyon에서 화석을 채취한 후 Bill Hoesch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Split Mt에서 습곡의 형성에 대하여 듣다

굴, 조개 화석 지층 위에서

조 다섯째날과 여섯째날 이루신 "종류대로"의 생물 창조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독특하며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록 오랜 시간이나 돌연변이와 같은 방법은 생물을 출현시킬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들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유전법칙에 의해 지금도 그 종류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강사는 지난 1월 7일 캐나다 성산교회 청년부에게 "지구 나이"에 대해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참석한 청년들은 동일과정설적인 과정이 아닌 노아 홍수같은 대격변을 통해 지층과 화석이 형성될 수 있음을 흥미롭게 이해했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확립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밴쿠버 인근의 젊은 개척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목사성경연구회"의 회원들에게 "지구 나이" 세미나를 인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참여하신 분들은 <타협의 거센 바람>을 읽게 되었고, 가족 필독서로 정하실만큼 성경적인 역사와 복음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월 10일에는 벨링햄크리스천스쿨의 교장에게 "노아홍수 전기" 강의를 하였으며 기독교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13일에는 벨링햄한인교회에서 "빙하시대"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세미나가 거듭될수록 성경에 대해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캠퍼스나 교회 내에서 창조과학을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9기 ITCM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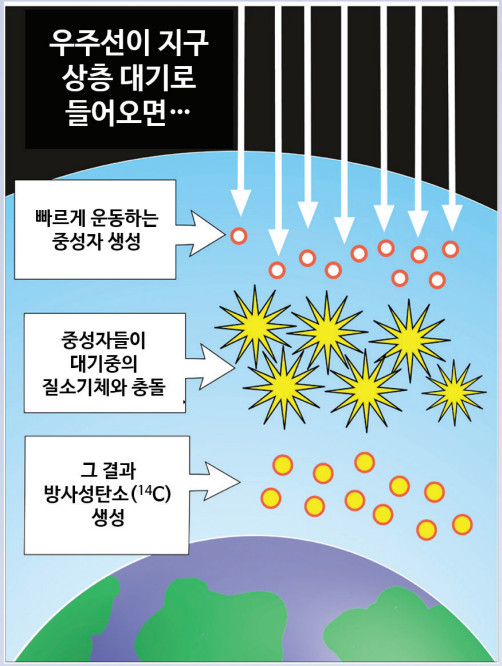
지난 2017년 12월 28일에 시작하여 2월 8일까지 6주 동안 아홉 명의 훈련생들이 9기 ITCM을 수료했습니다(ITCM에 대하여는 이번 호 '9기 ITCM이 있기까지' 글 참고). 매일 세미나, 도서 읽기, 영상 시청, 성경공부와, 한 번의 창조과학탐사와 두 번의 field trip을 통해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심도 있고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이번 ITCM은 7명의 강사진이 총출동하여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등 각 분야에 깊이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강사진들은 미국의 타주인 뉴저지, 테네시, 워싱턴 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에서도 세미나를 위해 달려와 주셔서 열정과 수고를 다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는 야외조사(field trip)를 가졌는데, 사흘간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앤자보레고(Anza Borrego) 주립공원, 토리파인(Torry Pine) 주립공원, 창조역사 박물관을 보며 창조-홍수-빙하시대에 이어진 일련의 역사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과, 이틀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의 오웬스(Owens) 분지를 통해 빙하시대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인도는 지질학 전공자인 이재만 회장과 미국인 강사인 Bill Hoesch가 맡았습니다. 훈련생들은 야외조사(field trip)을 통해서 화석, 지층, 사층리, 습곡, 단층, 빙하지형, 화산지형 등 가까이서 지질학적 증거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LA 시내에 있는 La Brea Tar Pit 박물관에서 빙하시대 화석을 실감있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수료생들은 이번 ITCM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과학적 증거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견고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번 9기 ITCM도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진화론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수료생들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Panum 분화구 안에서 부석을 들고 서다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Q&A(4)



과거에 더 강력했던 자기장의 영향

지구가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측정과, 고대의 도자기에 갇힌 "화석화된" 자기장에 기초한다.

더욱 강력한 자기장은, 그것이 질소원소(^{14}N)를 방사성탄소(^{14}C)로 변화시키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의 더욱 강력한 자기장은 우주 방사선의 유입을 줄여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기 중 생성되었던 방사성 탄소(^{14}C)의 양을 줄였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과거의 생물계는 오늘날보다 더 적은 ^{14}C 농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가장 좋은 추정은 지구의 자기장이 1,400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강했고, 2,800년 전에는 지금보다 4배 강했다고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홍수 당시 지구의 자기장은 훨씬 더 강했을 것이고, 따라서 생물계에 존재하던 ^{14}C의 양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대기와 생물계 중의 방사성 탄소의 양이 항상 오늘날과 동일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한다면, 당신은 이집트의 목상과 같은 바벨 이후의 초기 인류 유물의 연대를 추정할 때 훨씬 더 오래된, 잘못된 연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고고학에서 해 온 일이다.

이루어진 예측

만약 이러한 지구의 과거 방사성 탄소의 양에 대한 모델이 맞다면, 논리적 예측을 할 수 있다. 모든 대홍수 이전의 식물들이 매장되었을 때, 낮은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모두 대홍수 한 해 동안 석탄층을 형성하였다면, 모든 석탄층은 같은 농도의 낮은 방사성 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지구의 과거 방사성 탄소의 양에 대한 모델이 맞다면, 논리적 예측을 할 수 있다. 모든 대홍수 이전의 식물들이 매장되었을 때, 낮은 방사성 탄소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모두 대홍수 한 해 동안 석탄층을 형성하였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다! 4천만 년에서 3억 2천만 년 되었다는 미국의 에오세로부터 펜실베니아기의 석탄층으로부터 채취한 샘플들은 모두 48,000년에서 50,000년의 "연대"에 해당하는 낮은 농도의 방사성 탄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직 석탄층이 대홍수 이전의 식물들에 의해 약 4,350년 전인 대홍수 기간 중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14}C의 양은 창조론적 관점에서 예견할 수 있는 반면, 전통적인 진화론적 믿음과는 상반된다.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 탄소의 "수수께끼"는 풀릴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지구의 역사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대홍수와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연대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올바로 감안할 수 있도록, 방사성 탄소 "시계"를 재보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약 4,350년 전인 대홍수 동안 형성된 석탄층의 연대를 "48,000년"이라고 제시한다. 이것은, 만약 홍수 때의 ^{14}C /^{12}C의 비율이 현재 비율의 1/200 일 때 설명되는 것이다. 만약 과학자들이 실제 과거의 ^{14}C 농도보다 현재 200배 더 높다고 가정한다면, 방사성 탄소의 연대 추정은 43,650년이나 더 과장되게 된다.

실제로, 위에서 서술된 계산은 대홍수 이전의 생물계가 현재보다 100배 더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을 하게 한다. 이 정보를 사용하면, 우리는 대홍수 당시 얼마나 많은 ^{14}C이 지구에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모든 ^{14}C 연대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연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중 하나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실제 역사의 연대 범위 안에서 그 어떤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된다는 것이다.

Andrew Snelling, Ph. D in Geology / 번역 : 이충현

● 본 글은 How do we know Bible true II (Master Books), 11장 연재(4/4)입니다.

창조과학탐사

제 19차 유학생탐사

1/2~5, 2018

이때까지 성경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증인되는 성경을 찬찬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찬미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경의 진리와 진화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이민교회에서 대학생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준 〈밸리한인커뮤니티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고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보면서 믿는 것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저도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주 〈전주새중앙교회〉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 헌신을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박 4일이 짧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우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꼭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고 싶습니다. -신예지 〈First Reformed Church〉

솔직히 처음에는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힘든 유학생활의 re-freshing 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저는 모태신앙 &기독교 학교라는 온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 세상과 성경에 혼란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따라온 이 창조과학탐사를 통해 제 마음은 변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흠이 없습니다. 약 22년의 신앙생활동안 이렇게 성경이 크게 와 닿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안시은 <새벽빛연합감리교회>

2017년, 유학생 탐사를 다녀온 목사님들의 소감을 들었을 때, 이번에 꼭 와야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탐사가 끝나가는 이 시간, 탐사를 통해 경험된 감동들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탐사가 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인 〈충현선교교회〉

선교사님처럼 나의 분야에 대한 공부도 더욱 열심을 다하면서 나의 전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Dordt College〉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형상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으로 박스타고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윤혜진 〈ITCM 9기 훈련생〉

●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2018 ACT Schedule

2/24-27	창조과학탐사 (행복한교회), 이재만
3/1-3/30	한국 및 대만 세미나, 이재만
3/11-25	창조과학세미나 (제일영광교회), 노휘성
4/6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프라미스교회), 이재만
4/8-14	창조과학탐사 (생터성경사역원), 이재만
4/16-18	창조과학탐사(남침례교국내선교부), 이재만
4/20	창조과학세미나 (남가주프라미스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대전온누리교회), 이재만
4/28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4/30-5/5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5/10-17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5/18-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5.26	창조과학세미나 (LA순회선교단), 이재만
5/28-6/2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6/4-9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인투온누리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ACT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